

불교계의 3·1운동과 항일운동

대한불교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불교계의 3·1운동과 항일운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3·1운동 전후 불교계의 활동과 일제강점기 당시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불교계의 인물·사건·사찰에 대해 돌아보고, 일제하 불교계의 항일운동을 재조명하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19. 2. 27(수) 13:00~18:00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주 제
발 표

불교계의 3·1운동과 항일운동

1부 : 불교와 3.1운동의 개요 (13:15~14:45)

사회 김광식(동국대)

제1발표 : 불교계 3.1운동에 나타난 세계평화주의

발표 김순석(한국국학진흥원)

제2발표 : 불교계 3.1운동의 기억과 표상

발표 이경순(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3발표 : 金龍寺의 3.1운동

발표 한상길(동국대 불교학술원)

2부 : 불교의 3.1운동 계승 (14:55~16:55)

사회 김상영(중앙승가대)

제1발표 : 3.1운동 이후 불교계의 항일운동

발표 김경집(진각대)

제2발표 : 불교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참여와 지원활동

발표 이동언(선인역사문화연구소장)

제3발표 : 해인사의 3.1운동

발표 최화정(동국대)

제4발표 : 통도중학교의 민족교육과 폐교사건

발표 김광식(동국대)

3부 : 전체토론 (17:05~17:50)

사회 김상영(중앙승가대)



대한불교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

문의 | 02-730-0882

‘불교계의 3·1운동과 항일운동(5)’ 학술세미나 개최

-2019. 2. 27(수)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 주최-

1. 대한불교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 원철스님)는 2019년 2월 27일(수) 오후 1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계의 3·1운동과 항일운동’을 주제로 다섯 번째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2. 불교사회연구소는 2017년부터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까지 3·1운동백주년기념 학술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이 학술사업을 통해 3·1운동 전후 불교계의 활동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당시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불교계 인물·사건·사찰에 대한 연구와 방치되었던 자료의 조사·발굴을 통해 일제하 불교계의 항일운동을 재조명함으로써 불자와 국민들의 교육 홍보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3. 이번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될 논문은 <불교계 3.1운동에 나타난 세계평화주의>, <불교계 3.1운동의 기억과 표상 -해방직후 불교잡지 『新生』을 중심으로->, <金龍寺의 3.1운동>, <3.1운동 이후 불교계의 항일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불교계 인사들의 활동>, <해인사의 3.1운동>, <통도중학교의 민족교육과 폐교사건 -3.1정신 계승의 사례-> 등 총 7편이다. 동국대 김광식 특임교수(1부)와 중앙승가대 김상영 교수(2~3부)의 사회로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4. 1부 첫 번째 주제는 <불교계 3.1운동에 나타난 세계평화주의>으로,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이 발표하고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장이 지정 토론을 맡는다. 만해 한용운이 1919년 7월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 쓴 <조선독립의 서>와 1919년 11월 상해에서 발표된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 등을 통하여 불교 고유의 평화주의를 고찰할 예정이다.
5. 1부 두 번째 주제는 <불교계 3.1운동의 기억과 표상 -해방직후 불교잡지 『新生』을 중심으로->으로,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발표하고 최경순 연세대 박사(과정수료)가 지정 토론을 맡는다. 본 발표는 불교계에서 3.1운동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 기억을 역사화, 표상화하고 기념했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6. 1부 세 번째 주제는 <金龍寺의 3.1운동>으로,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발표하고 이승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학예연구사가 지정 토론을 맡는다. 1919년 4월 13일 경북 문경 김룡사에서 시도된 독립만세운동은 비록 실행 단계에서 중단되었지만, 불교계 3.1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각 사찰의 지방학림은 만세운동을 기획, 추진할 수 있었던 기반이었다. 김룡사 만세운동의 동력이 되었던 지방학림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근대교육의 면모를 살펴보고 만세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7. 2부 첫 번째 주제(통합 네 번째)는 <3.1운동 이후 불교계의 항일운동>으로, 김정집 진각대 교수가 발표하고 김성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일반연구원이 지정 토론을 맡는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3.1운동 당시 직접 참여했던 만해와 용성이 출옥 후 전개한 항일활동과 불교인들이 보여준 항일활동에 대해 살펴본 후, 다음으로 일제의 한국불교 통제에 맞서 민족적 활동을 펼친 불교인들의 노력과, 일제에 협력하는 교단이 아닌 자주적인 교단을 세워 한국불교의 정체성 정립을 주도한 불교계 활동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8. 2부 두 번째 주제(통합 다섯 번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불교계 인사들의 활동>으로, 이동언 선인역사문화연구소장이 발표하고 오경후 동국대 역사문화연구소 전문연구원이 지정 토론을 맡는다.
9. 2부 세 번째 주제(통합 여섯 번째)는 <해인사의 3.1운동>으로, 최화정 동국대 박사(과정수료)가 발표하고 제점숙 동서대 교수가 지정 토론을 맡는다. 해인학림이 당시 가지고 있던 근대적 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이 3.1운동의 바탕이 되었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바탕과 3.1운동으로 촉발된 불교의 근대적 자각이 광복 후 대한민국 건국당시까지 이어졌음을 살필 예정이다.
10. 마지막으로 2부 네 번째 주제(통합 일곱 번째)는 <통도중학교의 민족교육과 폐교사건 -3.1정신 계승의 사례->로,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가 발표하고 김은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이 지정 토론을 맡는다. 1934년에 설립된 통도중학교(통도사 불교전수학교)에서 민족교육이 담긴 내용을 가르친 사실이 1941년 9월 일제에 발각되어 교사와 학생들이 곤욕을 치른 사건의 개요와 성격을 고찰할 예정이다.
11. 이후 3부에서 이상 7편의 주제발표에 대한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 불교사회연구소 학술세미나 개요 >

- 주제 : 불교계의 3·1운동과 항일운동(5)
- 일시 : 2019. 2. 27(수) 13:00~18:00
-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사회 : 김광식 교수(동국대학교, 1부), 김상영 교수(중앙승가대, 2~3부)

○ 발표 / 논평

■ 1부 (불교와 3.1운동의 개요)

- 불교계 3.1운동에 나타난 세계평화주의
김순석(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 한동민(수원화성박물관장)
- 불교계 3.1운동의 기억과 표상 -해방직후 불교잡지 『新生』을 중심으로-
이경순(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최경순(연세대 박사과정 수료)
- 金龍寺의 3.1운동
한상길(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 이승윤(서대문형무소역사관 학예연구사)

■ 2부 (불교의 3.1운동 계승)

- 3.1운동 이후 불교계의 항일운동
김경집(진각대 교수) / 김성연(동국대 불교학술원 일반연구원)
-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불교계 인사들의 활동
이동언(선인역사문화연구소장) / 오경후(동국대 역사문화연구소 전문연구원)
- 해인사의 3.1운동
최화정(동국대 박사과정 수료) / 제점숙(동서대 교수)
- 통도중학교의 민족교육과 폐교사건 -3.1정신 계승의 사례-
김광식(동국대 특임교수) / 김은영(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 3부 (전체토론)

◎ 이 자료 관련 문의는 불교사회연구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02-730-0882, 민순의 연구원) 끝.
